이소가야 스에지

한일노동자 연대의 개척자



곽건홍
고려대강사 한국사

* 66~67쪽 사진은 1930년대 당시의 조선질소비료공장 전경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는 1907년 일본 시즈오까시에서 태어나 자동차 운전수 조수 일을 종사하다가 1928년 일본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5월 조선에 건너와서 나남(羅南) 19사단에서 근무했다. 당시 19사단은 중국 동북지역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나중에 이소가야는 1930년대 조선의 노동운동을 기록한 수기 「우리 청춘의 조선」에서 "나는 군대에 들어가 비로소 '국가'와 대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천황이라는 절대권력자의 이름 아래 전국민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국민의 희망이나 사랑, 평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냉혹하고 비정하게 앗아가 버리는 괴물이었다"고 천황제 국가 일본을 비판했다.

이소가야는 군에서 제대한 후, 흥남의 조선질소비료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혁명적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제2차 태평양노동조합사건'에

이소가야가 노동운동에 참가했던 1930년대 초반 조선은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노동자 파업이 증가하고 투쟁 방법이 격렬해진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이 조선에서 파시즘적 통제를 강화해 갔다.

연루되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 투옥되었고, 그 후 약 10여 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북한지역에서 일본인의 귀환활동을 주도했다. 1946년 말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는 출판문화활동에 종사했다.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 된 뒤에는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1930년대 식민지 파시즘 시대

이소가야가 노동운동에 참가했던 1930년대 초반 조선은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노동자 파업이 증가하고 투쟁 방법이 격렬해진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이 조선에서 파시즘적 통제를 강화해 갔다. 이런 정세 아래서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다음 사회주의운동 진영은 '당적 역량'을 결집하고 훈련하여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는 운동 방침을 채택했다. 이러한 운동 방침은 혁명적 노동조합 노선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1930년대 말까지 서울, 평양, 함흥 등 대규모 공업도시에서는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소가야 스에지를 비롯 이른바 '제2차 태로' 사건에 관계한 노동자들은 조선질소비료공장을 무대로 활동했다. 1920년대 후반 일본질소비료 주식회사는 조선에 진출해서 조선질소비료공장을 설립하고, 193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1942년에 이르면 일본질소(주)는 "조선산업의 최대 지배자"로 등장하게 된다. 조선질소비료 흥남공장 제3유산공장에 배치된 이소가야는 '살인공장'이라고 불리는 작업환경 속에서 일했다.

조선질소비료공장 시절

조선질소비료공장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소가야는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하루종일 고막이 터질듯이 쾅쾅

대는 광석분쇄기와 자욱한 분진, 용광로 속의 타고 남은 찌꺼기에서 나는 코를 찌르는 냄새 등등. 그곳에서는 유산(硫酸)이 주르르 떨어지는 옷을 입고 일곱 여덟 겹으로 접은 타올로 입과 코를 막은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가 주야 3대교로 일하고 있었다." 조선질소비료공장은 독한 연기와 화학공장의 부산물 등으로 공장 가동시부터 계속해서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그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극히 우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흥남 구룡리 손일룡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된 이소가야는 어느날 "이야기하러 오지 않겠느냐"는 집주인의 권유로 주인규, 주선규 형제, 송성관 등 후에 {흥남좌익}이라 명명된 혁명적 노동조합의 주도세력과 교우하게 된다. 이소가야 스에지는 그들에게서 식민지 지배의 실태, 즉 조선이 일본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가혹한 생활, 부조리하게 강요된 처참한 운명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고 어떻게 희망을 모색하고 이상을 추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과거의 인생과 결별하고 무정에 참가할 결의를 다지게 된다. 그는 수기에서 이 시기 이후 자신의 삶을 '다시 태어난 삶'이라고 규정했다.

'흥남좌익' 활동

'흥남좌익'이 활동을 본격화하기 전 1930년 가을부터 1931년 봄 사이에, 조선질소비료공장에서는 김호반을 중심으로 한 함흥위원회('제1차 태로사건')가 활동했다. 뒤 이어서 1931년 6월 결성된 흥남좌익은 김원묵을 지도자로 삼고, 조선질소비료공장 안에 조선인부(책임 송성관), 일본인부(책임 이소가야), 자유노동자부(책임 주선규)를 설치했다. 이들은 기관지 「노동자신문」을 발행해서 그들의 존재를 알렸다. 흥남좌익의 조직방법은 조직원들이 공장 안에서 '조합반'을 조직해서 이것을 기초조직으로 해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소가야는 1932년 봄 소비조합인 정장원(精藏園)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의 전단계로 삼으려 했다. 정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라도 '조합'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일본 경찰이나 회사 등을 자극하여 주목받게 되고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이었다. 흥남좌익 일본인부에 속한

일본인은 이소가야, 마에다 긴사쿠(前田金作)를 비롯한 5명이었다. 그러나 흥남좌익은 1932년 5월 1일 메이데이 투쟁을 준비하려다 사전에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500여명이 검거되기에 이른다.

이소가야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투옥된 후 함흥감옥에서 조선혁명에 대한 토론과 학습 등을 바탕으로 자신을 단련시켜 갔다. 한편 흥남좌익에 참가한 운동가들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검거된 이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흥남좌익에서 활동할 당시 주인규는 이소가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이 붙잡혀 형무소에 갈 때 그곳에서 서로 통방하는 방법을 정해 두세. 어디선가 '똥먹어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내가 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그리고 자네도 '똥먹어라'고 소리치게. 그러면 나는 이소가야가 건강한 몸으로 잘 있다는 걸로 알겠네"라고….

비록 이소가야 스에지가 관계했던 흥남좌익이 1년여의 짧은 활동에 그쳤지만, 이후에도 조선질소비료공장에서는 1930년대 내내 노동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1930년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산노동운동의 출발점이었고, 이 운동을 바탕으로 성장한 선진노동자들은 과거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8.15이후 신국가건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8.15이후 이소가야는 일본인의 귀환문제를 다루는 '함흥일본인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본인의 귀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한일연대의 개척자

일본제국주의가 파시즘화를 가속화하던 1930년대에 이소가야를 비롯한 일본인 노동자가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해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것은 국적을 초월한 노동자연대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초국적자본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때, 한일 노동자 사이에 맺어졌던 우정을 되살리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소가야 자신은 그들의 옛 친구들이 북한정권의 핵심에서 밀려나는 것을 현해탄 건너에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겠지만, 일제지대 노동운동에서 실천으로 나타난 노동자연대의 의의는 그가 생존해 있는 오늘에도 살아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